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대강절(Advent) 두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
망 가운데 신앙을 붙드는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림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3. 예배 안내

12월 25일(주일) : 성탄축하주일
1월 1일(주일) : 신년감사주일
* 올해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4. 카톡 채널 안내

외부에서 저희 교회소식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카톡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가입하셔서 교회소식등을 매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
리겠습니다.

지난 주 (11/27)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US\$450.00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록 3:1-6

말씀선포 Sermon 빈 들의 외침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함께

다함께

윤원신

다함께

다함께

유형선

다함께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2월 11일	12월 18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1월부터 시작합니다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나 처럼 사는 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중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야의 삶을 목상할 때마다 큰 감동과 교훈을 얻습니다. 엘리야는 모두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외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맞짱을 뜬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갈멜산 승리 이후 갑자기 로렘나무 밑으로 나아가 죽기를 간청합니다. 한 마디로 자살을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나 처럼 믿는 건 나 밖에 없다’는 생각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쳐도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도 없고, 약속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핍박과 비난과 조롱은 계속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빨리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 탈진에서 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너무 고독한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에 있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너처럼 믿는 사람이 너 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나 처럼 믿는 건 나 밖에 없다.’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타락하고 아무리 크리스천들이 변질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의 눈을 뜬 자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는 로렘나무 아래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십시오.

나 처럼 사는 건, 우리처럼 사는 건, 그것이 복 받은 삶이고 잘 사는 길입니다.